

준비 소홀·내실 없어 시민들 외면 썰렁한 5·18 행사장



‘민주 기사’의 날’ 차량 시위 재현 20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금남로에서 열린 ‘민주 기사’의 날’ 행사. 광주 시내 300여 대의 택시가 27년 전인 5·18 민주항쟁 당시의 차량 시위를 재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반으로 치닫는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가 준비 소홀 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다. 특히 주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내실이 없는 탓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올 기념행사의 슬로건인 ‘참여하여 5·18 함께 해오 6·10’은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다.

주요 행사 잇따라 취소·연기

◇순방 안 맞아 시민 참여 없어= 지난 17일 ‘광주전남철영역’이 주관한 ‘사랑의 헌혈운동’은 홍보 부족으로 단 한 명의 헌혈자도 없었다. 시민들이 직접 5·18 행사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 활동’도 시민 참여가 전혀 없었고, ‘생활 속의 민주 회의록 자랑하기’도 세 가족만이 신청했을 뿐, 나머지는 시구 의회 및 시민단체 회의록이 대부분이었다. ‘전남대 5·18 연구소’의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 국제학술회’(17~19일)와 ‘5·18 기념재단’의 ‘2007 광주국제평화포럼·동아시아 인권포럼’(16~18일)은 일정이 겹치면서 관심이 분산됐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국립 5·18 민주묘지’ ‘소망의 벽’ 벽화 그리기도 올해는 행사와 모자 관리사무소 측의 엇박자로 빛을 보지 못했다. 서로

홍보와 관리를 떠넘기는 바람에 체험에 참여한 참여객은 20일 현재 광주 ‘영재참여학원’ 수강생 50명에 그쳤다. ◇행사 참여 시민들 ‘헛걸음’=14일 시작 예정이었던 ‘상무대 영창체험’ ‘친일예술품 작품전시회’는 각각 15일과 16일 뒤늦게 열렸다. 하지만 기념행사 팸플릿에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인쇄돼 있어 찾아온 시민들이 발길을 되돌렸다. 금남로 일대에서 18일 열린 ‘오월 대학생 한마당’도 ▲도전 통일 끝판 벨 ▲록(ROCK)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세상 ▲풍물 한마당 ▲6·15 학생운동 부분 출범식 ▲먹거리 마당 ▲참여 마당 ▲전시 마당 등 대부분이 취소됐다. ◇예산 및 준비 부족=5월1일~27일까지 열리는 기념행사는 모두 43개

(전남·타시도 행사 제외). 이 가운데 40%가량인 17개(전야제·기념식 포함)의 행사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했다. 행사를 총괄하는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3개월 전야야 꾸려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주·전남을 제외한 전국 8개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으나, 총 3억7천100만원의 예산 중 타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서울 500만원 ▲대구 400만원 등 전체 7.9%인 2천950만원에 불과했다. 광주지역 참여단체 등도 예산 배정이 확정되기 전, ‘마구잡이’로 행사를 홍보했으며, 예산이 삭감되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저차 21’ 김상집 대표는 “5·18 기념재단의 요청을 환영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5월 정신이 잘못 계승되고 있다”며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5·18 기념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27주년 행사는 ▲광장의 기억 대공연(21일, 금남로) ▲남장. A. Free(24일, 5·18 기념공원) ▲학술세미나(26일, 광주 신광신학교회) ▲부활제(27일 금남로)를 끝으로 막이 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석학들이 말하는 5·18

“한국 사회 발전 이끈 역사적 사건”

전남대 5·18 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8~19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적 석학들은 5·18을 한국 사회 발전을 추동(推動)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19일 전남대에서 열린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평화’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토론에서 “5·18은 권위주의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졌고 시민사회의 가치·의미·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교수는 “북한은 남한 내 혁명운동을 일으켜 통일을 이루려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은 북한 정권에 많은 교훈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5·18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관계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독소 같은 역할을 했고 미국의 정책을 바꿔 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5·18은 동북아 질서가 유려처럼 평화지대가 될 수 있게 하는 기초이념으로

서 민주·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외친 사건”이라고 평했다. 학자들은 이날 5·18이 자신의 삶과 학문적 성향에 미친 영향 등 개인적 소회도 밝혔다. 최 교수는 “5·18로 인해 한국 문명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게 됐고 권위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고 말했으며, 윤 교수는 “국제정치 학자로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와 정반대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종교를 갖게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노래방강도 특별 순찰근무 중

광주 부녀자 납치 잇따라

6건 중 5건이 상무지구

경찰이 연해 노래방강도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 순찰근무에 나선 기간 동안 광주 시내 곳곳에서 부녀자 납치 사건이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래방 강도 검거를 위해 연인원 1만8천여 명을 투입한 3~5월 중 6건의 부녀자 납치 강도사건이 발생, 2천400여만원을 강탈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특히 서부경찰이

맡고 있는 상무지구의 경우, 지난 3월 14일 새벽 승용차에 타려던 박모(여·4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만 원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이달 1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납치·강도행각이 이어졌다. 서부경찰은 첫 범행 이후 강력반 1개팀(6~7명)과 지구대 순찰 차량 등을 합치 대기시키며 특별 근무를 썼지만, 범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납치 강도를 계속해 수사에 허점을 노출시켰다. 경찰은 또 편의점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해 놓고도 사건을 감추는데만 급급해 범행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부경찰은 5월에야 뒤늦게 ‘납치범 검거 전담반’을 구성, 지난 19일 용의자 차모(30·무직)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차씨 등을 인질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품평정전 · 호수공원 정의 최고 단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일해공원 반대 대책위 광주서 삼보일배

‘전두환(일해) 공원 반대 경남대책위’(공동대표 김영만) 회원 30여 명은 20일 오후 “전두환 공원 철폐”를 외치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광주은행 사거리~옛 도청 앞까지 500여 m를 삼보일배(三步一拜) 했다. <인터뷰 20면> 회원들은 삼보일배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7년 전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쳤는데 합천군은 학살자 전두환을 기념하는 공원을 조성해 5월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해공원 명칭 사용 금지 가져본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천군이 일해공원 이름을 철폐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 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오광록기자 kroh@

뺑소니차에 중태 경찰관 끝내 숨겨

뺑소니 차량에 치어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 소속 김정환(37) 경장(본보 5월 19일자 3면)이 19일 오후 4시 끝내 숨졌다. 김 경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10분께 화순군 화순읍 전남학숙 앞 삼거리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절도 피의자 최모(26·구속)씨 차량을 불잡기 위해 검문을 하던 중 최씨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었다. 영결식은 21일 화순경찰서 장(葬)으로 치러진다. 경찰청은 고(故) 김 경장에게 경사로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했다. /최권일기자 cki@

나원침 (7214) 김장동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양: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소나무 옮겨 분재 만들려다 ‘덜미’ 상나팔 ○국립공원에서 분재로 만들려고 소나무를 채취하던 40대 2명이 안벽에 매달려 작업을 벌였지만, 나무 캐는 소리가 너무 커 경찰에 달미.

○장성경찰은 지난달 27일 내장산 국립공원 내 일명 ‘취풍바위’에 자생하는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분재용 소나무 1그루를 채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권모(45)씨 등 2명을 특수수렵 절도미수 혐의로 20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높이 50여m의 안벽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기 위해 로프를 설치한 뒤 내려가 정과 망치 등을 이용해 채취하려다 소리를 듣고 관리공단 직원들이 달려오자 절망당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타고온 화물차량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추적, 피의자들을 검거. /장성=고재민기자 jbg@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립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적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적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산뜻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 반드시 의사, 약사 상담하시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